

## 한국형 사이코패시: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

강 민 성<sup>1)</sup>   서 동 기<sup>2)</sup>   서 종 한<sup>†</sup>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형 사이코패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사이코패시 척도 타당화 연구는 협소한 연구방법론, 남성 중심의 연구, 부적절한 요인구조 적용의 문제를 가진다. 또한, 구성타당도 연구에서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한국형 사이코패시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를 한 국내 논문 16편과 각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다룬 해외 논문 9편을 비교하였다. 각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구조, 요인 별 할당된 문항, 탈락된 문항을 비교하여 국내 사이코패시가 가지는 특성을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사이코패시는 물질만능주의, 마키아벨리즘, 반사회성과 충동성 간 구분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모든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지며 한국형 사이코패시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제시한다.

주요어 : 한국형 사이코패시, 리뷰연구, 비교문화, 타당화, 요인구조


1) 1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 whorabono@gmail.com

2) 공동저자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E-mail : wmotive@hallym.ac.kr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jonghansea@y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이코패시는 범죄성과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심을 받는 성격특질이다(서종한, 김정일, 2019; Cooke et al., 2004; Douglas et al., 2018). 국내에서는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범죄자의 사이코패시 점수에 관심을 보인다. 최근 다수의 이상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자의 사이코패시 평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사이코패시와 범죄행동에 대한 18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된 메타분석에서 사이코패시는 기관 및 지역 내 폭력 행동에 0.79, 일반 범죄 재범에 0.55의 평균 효과 크기(Cohen's d)를 가졌다(Salekin et al., 1996). 최근 연구에서 사이코패시는 HCR-20(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Webster et al., 1997), SARA(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Kropp et al., 1994, 1995, 1999)와 같이 폭력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azel et al., 2012; Singh et al., 2011). 이와 같은 평가도구들은 폭력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요인을 가진다. 반면, 사이코패시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단일 위험요인으로 이들 중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는 차별점이 존재한다(Bonta et al., 1998; Douglas et al., 2018; Hare et al., 1992). 대부분의 연구는 사이코패시 평가를 위해 PCL-R의 2요인 구조를 이용하였다. PCL-R 2요인 구조에서 요인 1은 사이코패시의 피상적인 대인관계와 냉담한 정서성을 나타내고, 요인 2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생활양식과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 이 중 요인 2가 요인 1보다 범죄 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stico et al., 2008).

사이코패시 개념은 일반적으로 Pinel(1962)이 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Pinel은 정상적인 이성적 기능을 가졌으나 심각한 행동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 ‘*manie san délir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Pinel의 임상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성은 폭발적인(explosive) 폭력성으로 현재 고려되는 사이코패시의 주 증상과는 차이가 있다. Kraepelin(1904)와 Schneider(1934)는 사이코패시를 생물학적 또는 기질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당시에는 무분별한 사이코패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흐려지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Cleckley(1951)는 사이코패시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됨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에 나섰다. Cleckley(1951)는 정신병동에서 사이코패스를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사이코패시의 16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을 3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위장된 특징(mask features)으로 피상적인 매력과 높은 지능, 망상의 부재, 불안의 부재, 낮은 자살 시도로 구성된다. 두 번째인 행동적 일탈 특징(behavioral deviance features)은 적절한 동기가 없는 반사회적 행동, 낮은 판단력과 학습능력, 비신뢰성, 음주 상태에서의 기이한 행동, 난잡한 성관계, 계획 달성의 지속적인 실패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피상적이고 기만적인 특징(shallow-deceptive features)은 비진실성, 후회나 죄책감의 결핍, 낮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 자기중심성, 낮은 통찰력, 낮은 대인관계에 반응성으로 이루어진다.

사이코패시의 실증연구는 Hare(1981)가 Cleckley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인 PCL(Psychopathy Checklist)을 개발하면서부터 가속되었다. 특히 개정판인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로, 사이코패시의 개념적 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PCL 이후에도 다양한 학자들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PPI(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LSRP(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TriPM(Triarchic Psychopathy Model), CAPP(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과 같은 사이코패시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Cooke et al., 2004; Levenson et al., 1995; Lilienfeld, 2005; Patrick, 2010).

하지만 사이코패시의 개념과 구조는 대부분 북미 문화권을 대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타문화권에 적용할 경우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Cooke, 1998; Egisdottir et al., 2008, Fanti et al., 2018). 또한, 유럽 수형자(Roy et al., 2021)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수형자 집단(Kosson et al., 1990)등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요인구조가 타문화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여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사이코패시 요인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PCL-R(이수정, 박혜영, 2009)을 시작으로 다수의 평가도구가 타당화되었다. 모든 타당화 연구에서 원적도와의 요인구조 차이가 발견되며 사이코패시의 문화적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해외와의 사이코패시 특성 차이가 확인되었다. 서종한과 이수정(2017)은 한국과 영국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PCL-R 3요인 구조 내 차별기능

문항을 확인하였다.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 등 대인관계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으로 작용하여 한국 문화의 위계적이고 집단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 충동성 요인에 속한 일부 문항도 한국 수형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는 차별기능문항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집단 내 강한 통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나에 등(2019)도 대인관계 요인과 충동성 요인에 속한 일부 문항에서 한국과 캐나다 수형자 간 응답반응의 차이가 나타나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이 사이코패시 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를 위한 접근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사이코패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초기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는 사이코패시의 국내 도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당시 유영철, 정남규 등과 같이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국내에서는 해외와의 사이코패시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사이코패시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PCL-R, PPI-R, SRPS와 같이 다양한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들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타당화 과정에서 해외, 특히 원적도의 사이코패시 요인 구조의 국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이 주로 사용되었다. 위 평가도구들을 통해 사이코패시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국내의 사이코패시 특성 탐색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내 사이코패시 연구는 사이코패시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만 그쳤으나 2021년부터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가 재개되어 원척도와 국내 사이코패시의 요인구조 차이를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LSRP, E-LSRP, TriPM, CAPP-SR 등 다수의 평가도구에서 사이코패시 요인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어 최근에서야 한국형 사이코패시 존재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었다(박소향, 서종한, 2022; 이수빈, 서종한, 2022a, b; 이수빈 등, 2022; 이유경 등, 2021; .이유경, 서종한, 2021a)

둘째, 한국형 사이코패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들에서 국내의 사이코패시는 해외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질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형 사이코패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지선(2014)은 사이코패시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에 그쳤고 서종한과 동료들(2018), 서종한과 김경일(2019)은 CAPP를 이용하여 한국 사이코패시의 원형성을 탐색하였다. 두 연구에서 한국인은 애착, 자기, 정서 영역을 사이코패시의 원형적인 특징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의 인식을 통해 원형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이코패시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ea & Cooke(2023)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사이코패시의 원형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CAPP의 33가지 증상 중 대부분이 사이코패시에 중간 이상의 원형성을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공감하지 못하는(unempathic)', '감정 깊이가 부족한(lacks emotional depth)', '자기 중심적인(self-centered)', '죄책감이 부족한(lacks remorse)'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으로 평가되었다. 인지 영역의 '집중력이 부족한(lacks concentration)', '계획성이 부족한(lacks planfulness)'과 행동 영

역의 '끈기가 부족한(lacks perseverance)', '산만한(restless)'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국외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낮은 원형성을 가지는 증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원형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한국의 특성은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원척도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이코패시를 반영하는 문항의 추가나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한국형 사이코패시를 시사하는 요인구조 차이는 나타났으나 개별 연구에 머무르고 있을 뿐 종합하려는 시도는 부재하다.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타당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요인구조 차이에서 탐색된 한국형 사이코패시 특성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의 동향 및 문제점

국내에 타당화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에는 PCL-R, PPI-R, LSRP/SRPS, E-LSRP, TriPM, CAPP-SRS, CAPP-SR이 있다. 이 중 CAPP-SRS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도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1을 보면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와 요인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표본을 통해 확인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적합성은 크게 문항 수, 요인 수, 요인 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국내에 타당화된 사이코

표 1.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원척도와 국내 타당화 결과 요약

척도	대상	척도 형식	분석 방법	문항 수	요인 수	요인 명
PCL-R	Hare, 2003	수형자 면담 기반	PCA, CFA	20	4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이수경 등, 2009	수형자	CFA	20	4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PPI-R	Lilienfeld et al., 2005	일반인, 수형자 자기보고식	EFA, CFA	154	8	권모술수적 이기주의, 반항적인 비협조, 비난의 외재화, 무책임한 비계획성, 사회적 영향력, 대담성, 스트레스 면역, 냉담함
	이수경, 박혜영, 2009	일반인, 수형자	EFA, CFA	55	8	권모술수적 이기주의, 비난의 외재화, 무책임한 비계획성, 사회적 영향력, 대담성, 스트레스 면역, 냉담함, 피상적 매력, 지루함의 회피
LSRP	Levenson et al., 1995	일반인 자기보고식	EFA, CFA	26	2	일차적 사이코패시, 이차적 사이코패시
	Brinkley et al., 2008	수형자	EFA, CFA	19	3	반사회성, 이기주의, 냉담성
	이수경, 김재경, 2011	일반인, 수형자	EFA, CFA	22	5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조작적 대인관계, 부족한 행동통제력, 약육강식적 사고방식, 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지는 생활태도
	박소향, 서종환, 2022	일반인	EFA, ESEM, MGCFA, RSM, DIF	25	4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냉담성, 충동성
E-LSRP	이유경, 박소향, 서종환, 2021	수형자	EFA, ESEM	20	4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조작적인 타인의 정서를 폄하 및 자기중심적인, 비계획적인 생활태도
	Christian, Sellbom, 2017	일반인 자기보고식	EFA, CFA	36	3	반사회성, 이기주의, 냉담성
	이수빈, 서종환, 2022b	일반인	EFA, CFA	27	4	자기중심성, 물질만능주의, 냉담성, 충동성

표 1.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원척도와 국내 타당화 결과 요약

척도	대상	척도 형식	분석 방법	문항 수	요인 수	요인 명
TriPM	Patrick, 2010	일반인, 수형자 자기보고식	수렴타당도만 확인함	58	3	대담성, 탈억제, 비열함
	이수빈, 서종한, 2022a	일반인	EFA, ESEM	34	4	대담함, 비계획 및 충동적, 반사회적 행동, 냉담성
	이수빈, 이유허, 서종한, 2022	수형자	EFA, ESEM	47	6	탈억제, 자기중심적, 대범함, 반사회적 행동, 과도한 유능감, 나르시시즘
CAPP-IRS	Cooke et al, 2004	수형자 면담 기반	수렴타당도만 확인함	99	6	자기, 인지, 지배성, 행동, 정서, 애착
	서종한, 2022	수형자	수렴타당도만 확인함			
CAPP-SR	Sellbom, Cooke, Shou, 2019	일반인 자기보고식	IRT, CFA	99	6	자기, 인지, 지배성, 행동, 정서, 애착
	이유허, 서종한, 2021a	일반인	EFA, ESEM, DIF	70	8	충동적 및 비계획성, 과도한 자기자신감, 고지식한 및 독선적인, 적대성, 조종하는, 공감능력의 결핍, 자기 특별의식, 냉담함 및 무심함
	이유허, 서종한, 2021b	수형자	RSM	58	*	*

\* 문항 적합도를 제공하여 요인구조가 제시되지 않음

(계속)

패시 평가도구는 문항 수에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척도의 일부 문항이 국내에 부적합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TriPM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58문항 중 24문항이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타당화된 TriPM은 34개의 문항을 가진다(이수빈, 서종한, 2022a). 국내에 부적합한 문항을 탈락시키는 것은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이나 다수의 문항이 탈락하는 경우 요인의 안정성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 및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한 문항의 추가나 수정이 요구된다(Anderson & Rubin, 1956; Christian & Sellbom, 2016; Cortina, 1993; Guadagnoli & Velicer, 1998).

다음으로 요인 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은 문항 간 상관을 통해 나타나는 잠재적인 개념으로 사이코패시 척도의 요인은 사이코패시의 구조를 의미한다(Comrey, 1988; Floyd, & Widaman, 1995).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는 각각 상이한 이론적·경험적 배경을 가지며 그에 맞는 요인구조를 지닌다. 예시로 LSRP는 Karpman(1948)이 제안한 ‘일차적 사이코패시(primary psychopathy)’와 ‘이차적 사이코패시(secondary psychopathy)’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Levenson et al., 1995). 이후 Brinkley et al.(2008)의 연구에서 이차적 사이코패시의 요인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회성’, ‘이기주의’, ‘냉담성’의 3요인 구조가 제안되었다. LSRP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일반인 집단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냉담성’, ‘충동성’의 4요인 구조를 보였다(박소향, 서종한, 2022). 수형자 집단에서도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조종적인’, ‘타인의 정서를 폄하 및 자기 중심적인’, ‘비계획적인 생활태도’의 4요인 구조를 보이며 국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물질만능주의와 같이 원척도와의 일관된 차이

도 발견되었다(이유경 등, 2021). 국내에서 다른 요인 수가 나타난 것은 국내 사이코패시의 구조가 원척도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명에서도 국내 타당화 연구의 일부 요인 명은 동일하나 원척도와 유사하거나 원척도에 없던 요인 명이 나타났다. 연구자는 요인에 할당된 문항의 특성에 따라 요인 명을 제시한다. 즉, 다른 요인 명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른 사이코패시의 특성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E-LSRP의 경우 원척도는 ‘반사회성’, ‘이기주의’, ‘냉담성’의 3요인 구조를 가진다(Christian & Sellbom, 2016).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요인과 동일한 이름의 ‘냉담성’ 요인이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요인에서는 ‘자기중심성’, ‘물질만능주의’, ‘충동성’으로 원척도의 요인명과 차이가 나타났다(이수빈, 서종한, 2022b).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에서의 요인구조 차이는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사이코패시가 원척도를 개발한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에 해외와는 다른 고유한 사이코패시 특성인 한국형 사이코패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진다. 대부분의 연구는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검사 번역 및 번안을 위한 국제기구 ITC(International Test Commission)가 제시한 지침 10번<sup>1)</sup>에서 원척도와의 요인구조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문항의 동등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2017). 즉,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Gelin

1) 집단 간에 구성개념의 동등성, 측정방법 동등성 및 문항 동등성에 대한 관련 통계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표 2.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 국내 사이코패시 연구 요약

척도		집단	남성	여성	분석방법
PCL-R	서중환, 이수정, 2017	수형자	- *	- *	GRM, DIF
	김나애, 이수정, 서중환, 2019	수형자	- *	- *	GRM, DIF
LSRP	박소향, 서중환, 2022	일반인	248	292	RSM, DIF
CAPP-SR	이유경, 서중환, 2021a	일반인	250	250	DIF
	이유경, 서중환, 2021b	수형자	304	7	RSM

\* 이수정, 이동길과 위희정(2015)과 동일하나 해당 연구에서 성별 기제가 누락됨

& Zumbo, 2003) 탐색을 통해 문항수준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변별해낼 필요가 있다. 척도 문항의 동등성이 확보되면 원척도와 직접적인 점수 비교를 통해 사이코패시 특성차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비교문화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DIF는 문항에 대한 응답반응 확률이 잠재특성이 같은 집단에 따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DIF는 Mantel-Haenszel 분석, ICC(Item Characteristic Curve) 비교, IRT에서 도출된 문항의 난이도(difficulty)<sup>2)</sup>와 변별도(discrimination)<sup>3)</sup>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Lord, 1980)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활용하는 추세이다(Cooke, Michie, 1997; Eichenbaum et al., 2021; Tsang et al., 2018).

IRT 모형에는 GRM(Graded Response Model), PCM(Partial Credit Model), RSM(Rating Scale Model)등의 다양한 다분문항 반응이론의 모형이 존재한다. 이 중 평정척도모형(RSM; Andrich,

1978)은 원 점수를 등간척도 점수로 변환하여 피검자가 평정단계를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제시한다. 평정단계에 대한 해석을 비교하면 척도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도출해낼 수 있다(McNamara, 1991). 평정척도모형을 활용하면 난이도에서 과도한 차이를 보이거나 낮은 변별도를 가지는 등 부적합한 문항을 탐색하여 척도에서 제외시키거나 적합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

표 2는 국내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사이코패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5개의 연구만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였다. 국내 성인 남녀집단 간 DIF 분석을 한 이유경과 서중환(2021a)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구에서 원척도와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중환과 이수정(2017)은 PCL-R의 6개 문항에서 한국과 영국의 재소자 간 사이코패시 차이를 확인했다. ‘대인관계’ 요인을 이루는 4개 문항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못 느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문항에서 응답반응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과 캐나다의 재소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과 같은 6개 문항이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사이코패스 특성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김나애 등,

- 2)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른 문항의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서 높은 문항 난이도는 문항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문항이 높은 점수의 피험자와 낮은 점수의 피험자를 구분하는 정도이다.



2019).

박소향과 서종한(2022)은 LSRP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 RSM을 적용해 피검사자의 능력 수준과 문항의 난이도를 비교하였다. 국내 타당화된 LSRP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와 변별도가 적절하였으나 일부 문항은 낮은 능력 수준의 피검사자 측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경과 서종한(2021b)의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CAPP-SR의 99문항 중 43문항이 국내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범주와 문항 난이도에서도 보완을 필요로 하였다. 4개 연구는 모두 척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내 사이코패시 타당화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표 3에서 13개의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 중 7개의 연구가 표본이 남성으로만 또는 남성 우세로 표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 사이코패스는 남성 사이코패스와 달리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orouzan & Cooke, 2005; Nicholls et al., 2007; Verona et al., 2012). 또한, 여성 사이코패스는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종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Kreis & Cooke, 2011; Logan, 2009; Nicholls & Petrila,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평가도구를 남성 위주로 타당화되어 여성 사이코패시 진단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수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

표 3.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 대상자 요약

척도	집단	남성	여성	분석방법	
PCL-R	이수정 등, 2009	수형자	451	-	CFA
PPI-R	이수정, 박혜영, 2009	일반인	470	640	EFA, CFA
		수형자	202	-	CFA
LSRP	이수정, 김재경, 2011	일반인	195	311	EFA, CFA
		수형자	353	58	CFA
	박소향, 서종한, 2022	일반인	248	292	EFA, ESEM, MGCF, RSM, DIF
	이유경, 박소향, 서종한, 2021	수형자	292	8	EFA, ESEM
E-LSRP	이수빈, 서종한, 2022b	일반인	252	252	EFA, CFA
TriPM	이수빈, 서종한, 2022a	일반인	248	292	EFA, ESEM
	이수빈, 이유경, 서종한, 2022	수형자	300	-	EFA, ESEM
CAPP-SRS	서종한, 2022	수형자	88	12	수렴타당도
CAPP-SR	이유경, 서종한, 2021a	수형자	250	250	EFA, ESEM, DIF
	이유경, 서종한, 2021b	수형자	304	7	RSM

화 연구는 참가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여성 수형자 대상 타당화 연구의 부족으로 많은 평가도구가 타당화되었음에도 여성 수형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평가도구에서도 국내의 요인구조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박소향과 서종한(2022)의 연구에서만 LSRP 국내 일반인 요인 모형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LSRP의 국내 4요인 모형은 남녀 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은 성립하였으나 '냉담성' 요인에서 측정단위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아 국내에서도 사이코패시 요인구조의 성차가 발견되었다.

DIF를 활용하여 요인 대신 문항 수준에서의 남녀 간 성차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LSRP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박소향, 서종한, 2022). 반면, 국내 타당화된 CAPP-SR에서 13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별 기능을 나타냈다(이유경, 서종한, 2021a). 해당 연구에서 국내 여성 사이코패시는 남성에 비해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계획성과 자기애가 두드러졌다. 해외에서 제시된 여성 사이코패시 특성인 관계적 공격성, 성적 일탈성, 조종적인 대인관계 특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Kreis & Cooke, 2011; Logan, 2009; Nicholls & Petrila,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사이코패시 성차가 해외와는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ITC 6<sup>4)</sup>, 7<sup>5)</sup>, 10번 지침에서는 평가

도구의 문항과 요인이 집단 간에 동일하게 작용하는지를 요구하며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도구 사용을 지양한다.

일부 타당화 연구는 부적절한 요인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표 4에서 국내 타당화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모형적합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연구들은 GFI(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위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보다 정교한 적합도 지표들이 개발되면서 최근 연구에서는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Browne & Cudeck(1992)은 GFI는 .90 이상, RMR은 .05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최신의 적합도 지표에 대해서 Vandenberg & Lance(2000)는 모형적합도 기준을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90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 이하,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10 이하로 제시한다.

국내 타당화 연구 중 LSRP만이 모든 모형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였다(박소향, 서종한, 2022; 이유경 등, 2022).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형적합도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예비적인 해석을 위한 잠정적인 지침으로 볼 필요가 있다(Bentler & Bonett, 1980; Byrne, 2001; Hu & Bentler, 1998, 1999; Marsh et al., 1988; Marsh et al., 2004). 그럼에도 일부 타당화 연구에서는 부적합한 요인구조 적용을 보인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PCL-R 타당화 연구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국내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지 않는 대신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상집단에 적절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4) 검사에서의 지시사항과 문항 내용이 모든 대상 집단들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5) 문항 형식, 평정 척도, 점수부여 범주, 검사상의 관례, 실시 방법 및 기타 절차가 의도된 모든 대

표 4. 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신뢰도 및 모형적합도 요약

대상	척도	Cronbach's $\alpha$	$\chi^2$ (df)	GFI	CFI	TLI	RMSEA	RMR	SRMR
수형자	PCL-R	.86	421.62(129)*	.85	.912	.911	.081	.044	
	이수정 등, 2009	-	551.228(62)**	.932	.912	.911	.081		
LSRP	이수정 등, 2015	-	1027.696(129)*	.905	.864	.802	.080		
	이수정, 김재경, 2011	-	868.01(199)***	.84	.84	.884	.09	.03	
TriPM	이유경, 박소향, 서종한, 2021	-	465.830(161)	.925	.925	.911	.078		
	이수빈, 이유경, 서종한, 2022	.70	11226.584(1101)	.824	.824	.812	.070		
일반인	PPI-R	.86	3793.37(1196)	.88	.92	.92	.045	.044	.056
	LSRP	.24-.67	549.42(199)	.91	.91	.91	.06	.03	
E-LSRP	박소향, 서종한, 2022	.84	408.242(206)	.937	.937	.909	.043		.031
	이수빈, 서종한, 2022b	-	884.941(314)	.842	.842	.824	.058		
CAPP-SR	TriPM	.88	3134.270(1420)	.830	.830	.802	.047		.042
	이유경, 서종한, 2021a	-	6782.103(4087)	.910	.910	.884	.033		.030

주) GFI = Goodness of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Hare(2003)의 4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임 \*\*Cooke, Michie(2001)의 3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임 \*\*\*동일연구의 일반인 대상 모형에 대한 적합도임

Factor Analysis)을 통해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국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이수정 등, 2009; 이수정 등, 201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PCL-R의 4요인 모형은 국내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CL-R 2요인 4단면 모형에서 '반사회성' 단면에 해당하는 문항이 제외된 3요인 모형만이 국내에 적합하였다(이수정 등, 2015). 하지만 국내에 출판된 PCL-R 평가 지침은 3요인 모형이 4요인 모형에 비해 사이코패시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4요인 모형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조은경, 이수정, 2008).

PPI-R 타당화 연구도 유사한 동향을 보인다. PPI-R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원척도의 요인 모형이 국내에 부적합함이 나타났다(이수정, 박혜영, 2009).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국내의 재구성 8요인 구조가 제시되었고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구성 8요인 구조에서 기존 154개 문항 중 99개 문항이 요인을 이루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또한, 수용자 집단과 비수용자 집단의 55개 문항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3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별 점수와 총점이 비수용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로 인해 PPI-R 역시 원척도의 모형으로 출판되었으나 원요인구조의 모형적합도가 매우 좋지 않다. 각각의 논문 및 평가지침서에서는 원척도의 개념적 구조가 지지되어야 함을 근거로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따를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는 척도 타당화 연구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며 ITC의 검수 지침에도 위반된다.

## 한국형 사이코패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들은 원척도와 요인구조와 응답반응 차이,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에서 부적합성, 남녀 집단 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들은 타당화 과정 내 국내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수빈과 서종한(2022a)은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 확인 외의 비교문화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유경 등(2021)은 국내 문화권에 맞는 구성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이코패시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요인분석을 이용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이다.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드러난 문항 수, 요인 수, 요인 명, 요인 별 할당된 문항, 탈락 문항을 원척도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사이코패시는 3가지의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 물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는 국내 일반인과 수형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국내 일반인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LSRP를 타당화한 연구에서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 요인이 도출되었다(이수정, 김재경, 2011). 일반인과 수형자 집단을 분리하여 타당화한 연구에서도 '물질만능주의',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요인이 확인되었다(박소향, 서종한, 2022; 이유경 등, 2021). 또한, LSRP의 확장판인 E-LSRP의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 '물질만능주의' 요인이 나타났다(이수빈, 서종한, 2022b). 해당 요인들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는 문항이 공통적으로 할당되었다. 각 요인들에 할당된 문항은 LSRP 원척도의 2요인 모형에서 ‘일차적 사이코패시’, 3요인 모형에서 ‘이기주의’ 요인에 해당하며 E-LSRP 원척도에서도 ‘이기주의’ 요인에 해당한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특성은 국내 수행자 대상 TriPM 타당화 연구에서도 드러난다(이수빈 등, 2022). 국내 수행자 집단은 원척도의 3요인 모형 대신 6요인 모형을 가진다. 이 중 ‘반사회적 행동’ 요인은 ‘나는 몰래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적이 있다’, ‘나는 누군가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등 타인의 금전이나 물품이 목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물질만능주의 태도는 국외의 사이코패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다. Hare(2009)는 사이코패시가 탐욕적인 위험감수성향(greedy risk-taking)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사이코패시는 물질주의, 탐욕적인 기질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Plich & Górnik-Durose, 2016; Sekhar et al.,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물질만능주의가 개별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다.

### 마키아벨리즘 성향

마키아벨리즘은 16세기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Christie & Geis, 1970a).

LSRP의 ‘냉담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국내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도 ‘냉담성’ 요인에 속했다(박소향, 서종한, 2022). 그러나 국내의 ‘냉담성’ 요인은 기존 ‘냉담성’ 요인에 ‘내가 이룬 성공이 타인의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역문항)’는 문항이 추가로 요인을 이루었다. 국내 수행자 대상 LSRP 타당화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의 ‘냉담성’ 요인과 동일한 문항 구성을 가진 요인이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내용이 냉담성보다 조종적인 특성이 두드러져 요인 명을 ‘조종적’으로 설정하였다(이유경 등, 2021). LSRP의 3요인 구조를 주장한 Brinkley et al.(2008)는 ‘냉담성’ 요인은 죄책감과 후회의 결핍이나 얕은 감정 같은 사이코패스의 정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문항의 내용은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역문항)’,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역문항)’,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기에, 속임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역문항)’ 등 타인에 대한 기만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키아벨리즘의 조종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은 일반인 대상 TriPM 타당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이수빈, 서종한, 2022a). 해당 연구는 전반적으로 원척도의 ‘대담성’, ‘비열함’, ‘탈역제’ 3요인 구조에 따라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Patrick, 2010). 하지만, 국내의 ‘대담함’ 요인은 기존의 ‘대담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나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훨씬 덜 느낀다’ 등 나르시시즘에 가까운 문항들이 요인을 이루지 못하고 탈락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대담함’ 요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다

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데 재주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할 수 있다', '나는 집단에서 앞장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역문항)와 같은 마키아벨리즘이 두드러지는 문항 구성을 가진다.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CAPP-SR을 타당화한 연구에서도 지배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조종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이유경, 서종한, 2021a). 조종하는 요인은 성취나 성공을 위해 타인을 기만하는 문항을 포함하며 마키아벨리즘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고지식한·독선적인' 요인도 '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필요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등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사이코패시가 마키아벨리즘과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어두운 성격(Dark Triad)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SD3(Short Dark Triad)와 DD12(Dirty Dozen)의 국내 일반인 타당화 연구에서 '사이코패시' 요인 문항은 '마키아벨리즘' 요인 문항과 함께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박종철 등, 2021; 조호진 등, 2022). 동일한 척도를 타당화한 다른 연구에서는 일부 문항이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시' 요인으로 서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였다(박소향, 박선영 등, 2022; 박소향, 서종한 등, 2022). 박소향, 서종한 등(2022)은 SD3 원척도의 '마키아벨리즘' 요인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이 '사이코패시' 요인의 문항과 하나의 요인을 이루어 이를 '사이코패시' 요인으로 명명했다. 수렴타당도 분석에서 '사이코패시' 요인과 '마키아벨리즘' 요인은 각 해당하는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그러나 '사이코패시' 요

인은 '마키아벨리즘' 요인보다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Mach-IV(Christie & Geis, 1970b) 및 DD12의 '마키아벨리즘'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의 상관은 국외에서도 주장되며 두 요인 간 강한 중첩성이 발견되었다(McHoskey et al., 1998; Moshagen et al., 2018; Özsoy et al., 2017). 그러나 물질만능주의와 같이 원칙도의 사이코패시 요인구조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의 특성이 개별의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반사회성과 충동성 간 구분된 인식

한국의 사이코패시는 반사회성과 충동성이라는 유사한 특성이 국외와 비교해 보다 다른 개념으로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TriPM의 '탈억제' 요인은 국내에서는 반사회적 행동과 충동적 행동으로 구분되어 요인이 형성되었다. 국내 일반인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 TriPM의 3요인 구조는 '대담함', '비계획·충동성', '반사회적 행동', '냉담성'의 4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빈, 서종한, 2022a). 4개의 요인 중 '비계획·충동성', '반사회적 행동' 요인은 원칙도의 '탈억제' 요인에서 분화된 요인으로 Patrick et al.(2009)이 반사회적 행동을 충동 억제의 문제로 바라본 것과 차이가 있다. '비계획·충동성' 요인은 '나는 종종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뛰어들곤 한다', '나는 종종 즉각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와 같은 충동 억제 및 계획 수립과 실행에서의 어려움을 가지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반사회적 행동' 요인은 '나는 돈을 내지 않고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적이 있다', '나는 차량

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등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수형자 대상 TriPM 타당화 연구에서도 '탈억제' 요인의 문항은 '탈억제'와 '반사회적 행동' 요인으로 분리되었다(이수빈 등, 2022).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PCL-R 4요인 모형에서도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생활방식' 요인과 다양한 범죄력을 묻는 '반사회성' 요인을 구분한다(이수정 등, 2009). TriPM과 PCL-R을 제외한 평가도구에서는 범죄 행동을 묻는 문항의 부재로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모든 척도에서 확인되었다. PPI-R의 '무책임한 비계획성', LSRP의 '충동성' 및 '비계획적인 생활태도', E-LSRP의 '충동성', CAPP-SR의 '충동적·비계획성' 요인이다(박소향, 서종한, 2022; 이수빈, 서종한, 2022b; 이수정, 박혜영, 2009; 이유경 등, 2021; 이유경, 서종한, 2021a). 충동성은 사이코패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원칙도들 중 LSRP는 '이차적 사이코패시' 또는 '반사회성', E-LSRP는 '반사회성', CAPP-SR은 '행동' 요인에 충동성 관련 문항이 속하여 국내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LSRP의 2요인 구조에서 '이차적 사이코패시'는 사이코패시의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Levenson et al., 1995). 3요인 구조의 '반사회성'은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으며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Brinkley et al. 2008; Christian & Sellbom, 2016). CAPP-SR의 '행동' 요인은 '끈기가 부족한', '믿을 수 없는', '무모한', '산만한', '방해하는', '공격적인'의 6개 증상으로 구성된다. 원칙도의 요인들은 모두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함으로 나타난다(Cooke et al, 2004; Sellbom et al., 2019).

## 논 의

국내에서 타당화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를 종합해본 결과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났다. 한국형 사이코패시는 물질만능주의와 마키아벨리즘의 특성을 가지며 반사회적 행동과 충동적 행동의 뚜렷한 구분을 보였다. 한국인의 물질만능주의 성향은 타국가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이다(신지윤, 설경옥, 2022; 유지혜, 설경옥, 2018; Flynn et al. 2013). 양혜만과 조영호(2018)는 한국인은 IMF 위기 이후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형 사이코패시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Plich & Górnik-Durose(2016)의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은 물질만능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물질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하나의 행동적 특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헝가리, 캐나다, 미국, 호주의 마키아벨리즘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의 마키아벨리즘은 호주 다음으로 높은 마키아벨리즘적 전략(tactics)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Monaghan et al., 2018). 마키아벨리즘적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조종적이고 지배적인 행동 특성이 나타난 한국의 마키아벨리즘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사회적 행동과 충동적 행동은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황승흠(2010)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범의식은 1990년대부터 점차 범을 개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바라보아 위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기피한다. 한국형 사이코패스도 행동의

사회적 허용을 의식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높은 사회적 통제로 인해 사회 규범을 의식한 결과일 수 있다(Rossier et al., 2017). 한국 역시 집단주의 문화권 국가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Rogoza et al., 2021). 반사회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억제의 대상이 되는 반사회적 행위와 그렇지 않은 충동적 행동에 대한 구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 또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사이코패시 특성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코패시 구성개념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논쟁이 된 바가 있다. PCL-R을 개발한 Hare는 범죄이력을 사이코패시의 필수 개념으로 보아 '반사회성' 요인을 포함한 4요인 구조를 주장하였다. 반면, Cooke & Michie(2001)은 4요인 구조의 전신인 2요인 구조 내 범죄행동 문항을 지적하며 3요인 구조를 주장한다. 과거 범죄행동은 재범 예측에 있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지만 사이코패시 특성과 관련이 높은 요인일 뿐 사이코패시를 구성하는 개념은 아니다(Cooke et al., 2005; Skeem & Cooke, 2010a, Skeem & Cooke, 2010b). Hart & Storey(2013)의 주장처럼 반사회성의 측정은 사이코패시의 올바른 진단을 저해하고 사이코패시의 핵심특성인 대인관계와 정서적 특징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서종한과 이수정(2017)과 김나에 등(2019)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와 정서성이 진단 과정에서 주는 정보가(information characteristic)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시 구성개념에 대한 입장은

다른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에서도 동일하다. Karpman(1948)의 사이코패시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평가도구인 LSRP와 그의 확장판인 E-LSRP는 이차적 사이코패시 또는 반사회성이라는 요인을 가진다. 그러나 LSRP를 개발한 Levenson은 범죄행동의 유무가 사이코패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범죄행동에 역학적인 원인인 상태 불안(state anxiety) 특성을 이차적 사이코패시로 다루었다(Levenson et al., 1995). PPI-R과 TriPM도 범죄이력이 일반인 집단 내 사이코패시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모형 내 요인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다(Lilienfield et al., 2005; Patrick, 2010). TriPM은 일부 문항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나 이는 핵심요인인 '탈억제'의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범죄행동을 핵심개념으로서 평가하는 PCL-R 4요인 구조와는 상이하다. 특히, CAPP은 범문화적(pan-cultural)이고 범성적(pan-sexual)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지향하여 편향을 야기하는 범죄행동을 문항에서 제외하였다(Kreis & Cooke, 2011).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타당화 결과에서도 반사회성과 충동성 간에 구분된 인식이 나타남을 고려할 때 범죄행동은 문항 난이도가 높아 부적절한 문항임은 물론이고 사이코패시의 비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반사회성과 충동성 간에 요인 구분이 나타난 국내 TriPM 타당화 연구의 '반사회적 행동' 요인은 일반인과 수형자 집단 모두에서 사이코패시의 핵심적인 특성인 '대범함'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다(이수빈, 서종한, 2022a; 이수빈 등, 2022).

국내 사이코패시 진단과 평가는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평가는



올바른 평가도구 사용에서 시작된다. 한국형 사이코패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 주제이다. 이를 반영하여 요인분석에서 탈락한 문항을 수정하거나 RSM과 같이 IRT를 이용한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수정, 삭제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문항 수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타당화된 모든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를 비교하였고 요인 구조를 통해 한국형 사이코패시만의 독특한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사이코패시 특성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해외에서는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 개념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사이코패시가 자신들의 개념적 구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 타당화된 PCL-R, PPI-R, LSRP, TriPM, CAPP 모두 각 연구진들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사이코패시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척도로 개발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 없이 해외의 사이코패시 구조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사이코패시는 해외의 사이코패시 특성 범주에 제한되므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완전히 알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한국 고유의 사이코패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이코패시로 판단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하는 등 질적 연구를 통해 개념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의 타당화 연구에서 반복

된 경향을 한국형 사이코패시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나 모든 타당화 연구에서 해당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이론적 바탕은 서로 상이하다. 개념 구조에 따라 일부 척도에서 한국형 사이코패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LSRP, E-LSRP, TriPM 이외의 척도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관련된 문항의 부재로 해당 요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CAPP-SR과 CAPP-SRS은 문화와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 문항을 되도록 제외하려고 하였으며 동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Kreis & Cooke, 2011).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척도가 자기보고식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는 면담 기반 평가도구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절약되고 평가자 간 신뢰도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을 기만하는 사이코패스는 문항에 거짓 응답을 할 우려가 있다(Hare, 1991).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의 타당도는 국외 연구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외현화 행동에서 자기보고식 평가도구가 면담 기반 평가도구에 준하는 예측타당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Jones & Miller, 2012). 또한, 사이코패시가 높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시 평가에서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여 검사 결과를 속이기보다 반항하기 위해 과대보고하는 경향을 가진다(Rogers et al., 2002). 그럼에도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평가도구가 단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피검자의 응답왜곡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PPI-R 등과 같이 응답왜곡이 나타난 도구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응답왜곡을 변별해낼 타당도 지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애, 이수정, 서종한 (2019). PCL-R 기반 사 이코패스 비교문화연구. *교정담론*, 13(1), 1-31.
- 박소향, 서종한 (2022).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 기보고 검사 (LSRP;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타당화 연구: ESEM 과 RSM 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2(3), 189-229.
- 박소향, 박선영, 서종한 (2022). 우리 주변의 어두운 성격: Dirty Dozen 12 (DD12) 타당 화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3), 79-115.
- 박소향, 서종한, 홍정운 (2022). 어두운 3 요소 성격 측정 도구 (SD3) 의 타당화 연구: ESEM 과 DIF 분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 연구*, 36(4), 285-336.
- 박종철, 오현주, 이나희, 손하림, 이동귀, 배병 훈 (2021). 한국판 어두운 성격 3 요소 단 축형의 요인구조와 타당화 지표. *한국심 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511-539.
- 박지선 (2014).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 식과 두려움. *한국범죄학*, 8(2), 145-176.
- 서종한, 김경일 (2019). 한국형 사이코패스 원 형성과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 구. *교정담론*, 13(3), 87-115.
- 서종한, 신강현, 김경일 (2018). 한국사회에서 의 사이코패스 개념, 믿음, 태도에 관한 연구: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 (CAPP) 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2(2), 5-28.
- 서종한, 이수정 (2017). 문항반응이론 기반 PCL-R 비교문화 연구: 한국문화에서의 사 이코패시는?. *형사정책연구*, 28(4), 47-87.
- 양해만, 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 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 75-100.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 회문제*, 24(3), 385-410.
- 신지윤, 설경옥 (2022).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 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 자기 불일 치,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 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3), 373-392.
- 이수빈, 서종한 (2022a). 삼원 사이코패시 측정 도구 (TriPM) 의 일반인 대상 타당화: 탐 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ESEM) 을 중심으 로. *보호관찰*, 22(2), 107-139.
- 이수빈, 서종한 (2022b). 확장판 레빈슨 사이코 패시 자기보고 검사 (E-LSRP) 타당화 연구. *한국범죄학*, 16(3), 117-136.
- 이수빈, 이유경, 서종한 (2022). 삼원 사이코패 시 측정도구 (TriPM; Triarchic psychopathy Model) 의 타당화. *경찰학연구*, 22(2), 125-156.
- 이수정, 김재경 (2011).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 (SRPS) 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2(1), 35-47.
- 이수정, 박혜영 (2009).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 평가 검사: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심리검 사연구소.
- 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2009).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의 구 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57-71.
- 이수정, 이동길, 위희정 (2015).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PCL-R 2, 3, 4 요인 모형 타당성 검증. *한국범죄학*, 9(2), 3-32.
- 이유경, 서종한 (2021a). 일반인 대상 자기 보고식 사이코패시성격 종합평가 도구

- (CAPP-SR) 타당화 연구: ESEM 과 DIF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3), 5-35.
- 이유경, 서종한 (2021b).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성격 종합평가 도구 (CAPP-SR) 타당화 연구: 평정척도모형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3), 115-144.
- 이유경, 박소향, 서종한 (2021).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 (LSRP;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의 타당화: 한국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담론*, 15(2), 67-94.
-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R. D. Hare 저, 조은경, 이수정 역) (pp. 259-295).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 조호진, 이풍가, 마홍, 옥지수 (2022). 한국어판 단축형 어둠의 3 요소 척도 (K-Dirty Dozen) 의 타당도와 요인구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5(2), 299-326.
- 황승흠 (2010).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22(2), 59-92.
- Ægisdóttir, S., Gerstein, L. H., & Çinarbaş, D. C. (2008). Methodological issues in cross-cultural counseling research: Equivalence, bias, and transl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2), 188-219.
- Anderson, T. W., & Rubin, H. (1956). Statistical inference in factor analysis. In J. Neyman (Ed.), *Proceedings of the Third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pp. 111-1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drich, D. (1978). Relationships between the Thurstone and Rasch approaches to item scaling.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451-462.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 Bonta, J., Law, M., & Hanson,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23-142.
- Brinkley, C. A., Diamond, P. M., Magaletta, P. R., & Heigel, C. P. (2008). Cross-validation of Levenson's Psychopathy Scale in a sample of federal female inmates. *Assessment*, 15(4), 464-48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 Christian, E., & Sellbom, M.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xpanded version of the three-factor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8(2), 155-168.
- Christian, E., Sellbom, M., & Wilkinson, R. B. (2017). Clarifying the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differences in general attachment styles and psychopath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8(4), 329.
- Christie, R., & Geis, F. L. (1970a). Chapter I-Why Machiavelli. *Studies in Machiavellianism*, 1-9.
- Christie, R., & Geis, F. (1970b). Scale construction.

- Studies in Machiavellianism*, 34(4), 10-34.
- Cleckley, H. M. (1951). The mask of sanity. *Postgraduate Medicine*, 9(3), 193-197.
- Comrey, A. L. (1988). Factor-analytic methods of scale development in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5), 754.
- Cooke, D. J. (1998). Psychopathy across cultures. In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13-45). Springer Netherlands.
- Cooke, D. J., & Michie, C.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sychological Assessment*, 9(1), 3.
- Cooke, D. J., Hart, S. D., Logan, C., & Michie, C. (2012). Explicat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nceptual model,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42-252.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2005). Searching for the pan-cultural co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2), 283-295.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4). Reconstructing psychopathy: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antisocial and socially deviant behavior in the diagno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4), 337-357.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
- Douglas, K. S., Vincent, G. M., & Edens, J. F. (2018). Risk for criminal recidivism: The role of psychopathy. *Handbook of Psychopathy*, 682-709.
- Eichenbaum, A. E., Marcus, D. K., & French, B. F. (2021).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33(8), 766-776.
- Fanti, K. A., Lordos, A., Sullivan, E. A., & Kosson, D. S. (2018). Cultural and ethnic variations in psychopathy. *Handbook of Psychopathy*, 529-569.
- Fazel, S., Singh, J. P., Doll, H., & Grann, M. (2012). Use of risk assessment instruments to predict violence and antisocial behaviour in 73 samples involving 24 827 peopl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345.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
- Flynn, L. R., Goldsmith, R. E., & Kim, W. M.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1947-2900)*, 3(3).
- Forouzan, E., & Cooke, D. J. (2005). Figuring out la femme fatale: Conceptual and assessment issues concerning psychopathy in female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3(6), 765-778.
- Gelin, M. N., & Zumbo, B. D. (2003).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results may change depending on how an item is scored: An illustration with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1), 65-74.
- Guadagnoli, E., & Velicer, W. F. (1988). Relation

- of sample size to the stability of component patterns. *Psychological Bulletin*, 103(2), 265.
-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revised psychopathy-checklist*.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2009). *Behaviors of the Psychopath*. Ocean county corporation: World Press. November.
- Hare, R. D., Forth, A. E., & Str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pp. 285-300). Sage Publications, Inc.
- Hart, S. D., & Storey, J. E. (2013). Clinical and forensic issue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R. K. Otto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Forensic psychology* (pp. 556-578). John Wiley & Sons, Inc..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2017). *The ITC Guidelines for Translating and Adapting Tests* (Second edition). <https://www.InTestCom.org>
- Jones, S., & Miller, J. D. (2012). Psychopathic traits and externaliz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self-and informant reports in the statistical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s.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255.
- Karpman, B. (1948). The myth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4(9), 523-534.
- Kosson, D. S., Smith, S. S., & Newman, J. P. (1990). Evalu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psychopathy in black and white male inmates: three preliminary stud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3), 250.
- Kraepelin, E. (1904). *Lectures on clinical psychiatry*. William Wood & Co.
- Kreis, M. K., & Cooke, D. J. (2011). Capturing the psychopathic female: A prototypicality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across gender.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5), 634-648.
- Kropp, P. R., Hart, S. D., Webster, C. D., & Eaves, D. (1994). *Manual for the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SARA) Guide*. Vancouver, The British Columbia Institute Against Family Violence.
- Kropp, P. R., Hart, S. D., Webster, C. D., & Eaves, D. (1995). *Manual for the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SARA)*. British Columbia, The British Columbia Institute on Family Violence.
- Kropp, P. R., Hart, S. D., Webster, C. D., & Eaves, D. (1999).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SARA)*.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Leistico, A. M. R., Salekin, R. T., DeCoster, J., & Rogers, R. (2008). A large-scale meta-analysis relating the Hare measures of psychopathy to antisocial conduct. *Law and Human Behavior*, 32, 28-45.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
- Lilienfeld, S. O., Widows, M. R., & Staff, P. A. R. (2005).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TM-revised. *Social Influence (SOT)*, 61(65), 97.
- Logan, C. (2009). Psychopathy in women: Conceptual issues, clinical presentation, and management. *Neuropsychiatrie*, 23(S1), 1-9.
- Lord, F. M. (1980).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practical testing problems*. Routledge.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91.
- Marsh, H. W., Hau, K. T., & Wen, Z. (2004). In search of golden rules: Comment on hypothesis-testing approaches to setting cutoff values for fit indexes and dangers in overgeneralizing Hu and Bentler's (1999) finding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1(3), 320-341.
- McHoskey, J. W.,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92.
- McNamara, T. F. (1991). *The Role of Item Response Theory in Language Test Validation*.
- Monaghan, C., Bizumic, B., & Sellbom, M. (2018). Nomological network of two-dimensional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0, 161-173.
- Moshagen, M., Hilbig, B. E., & Zettler, I. (2018). The dark core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125(5), 656.
- Nicholls, T. L., & Petrila, J. (2005). Gender and psychopathy: An overview of important issues an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3(6), 729-741.
- Nicholls, T. L., Odgers, C. L., & Cooke, D. J. (2007). Women and girls with psychopathic characteristics. In A. R. Felthous & H. Saß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psychopathic disorders and the law* (pp. 347-366). John Wiley & Sons Ltd.
- Özsoy, E., Rauthmann, J. F., Jonason, P. K., & Ardiç, K. (201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urkish versions of dark triad dirty dozen (DTDD-T), short dark triad (SD3-T), and single item narcissism scale (SIN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7, 11-14.
- Patrick, C. J. (2010). *Operationalizing the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Preliminary description of brief scales for assessment of boldness, meanness, and disinhibition*. Unpublished test manual,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 1110-1131.
- Patrick, C. J., Fowles, D. C., & Krueger, R. F. (2009).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Developmental origins of disinhibition, boldness, and meann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3), 913-938.
- Pilch, I., & Górnik-Durose, M. E. (2016). Do we need "dark" traits to explain materialism?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Dark Triad over the HEXACO domains in predicting materialistic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102-106.
- Pinel, P. (1962). *A treatise on insanity* (D. Davis, Trans.). Hafner.(Original work published

- 1801).
- Rogers, R., Vitacco, M. J., Jackson, R. L., Martin, M., Collins, M., & Sewell, K. W. (2002). Faking psychopathy? An examination of response styles with antisocial yout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8*(1), 31-46.
- Rogoza, R., Zemojtel-Piotrowska, M., Jonason, P. K., Piotrowski, J., Campbell, K. W., Gebauer, J., & Włodarczyk, A. (2021). Structure of Dark Triad Dirty Dozen across eight world regions. *Assessment, 28*(4), 1125-1135.
- Rossier, J., Ouedraogo, A., & Dahourou, D. (2017). Personality structure and assessment in French-speaking African cultures. In A. T. Church (Ed.), *The Praeger handbook of personality across cultures: Trait psychology across cultures* (pp. 73-103). Praeger/ABC-CLIO.
- Roy, S., Vize, C., Uzieblo, K., Van Dongen, J. D., Miller, J., Lynam, D., ... & Neumann, C. S. (2021). Triarchic or septarchic?—Uncovering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s (TriPM) structure.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2*(1), 1.
- Salekin, R. T., Rogers, R., & Sewell, K. W. (1996).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and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redictive validity of dangerous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3), 203.
- Schneider, K. (1934). *Die psychopathischen personalities* (3rd ed.). Deuticke.
- Sea, J., & Cooke, D. (2023). Prototypicality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8*(4), 1245-1258.
- Sekhar, S., Uppal, N., & Shukla, A. (2020). Dispositional greed and its dark allies: An investigation among prospective ma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110005.
- Sellbom, M., Cooke, D. J., & Shou, Y. (2019).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Self-Report (CAPP-SR). *Psychological Assessment, 31*(7), 878.
- Singh, J. P., Grann, M., & Fazel, S. (2011). A comparative study of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regression analysis of 68 studies involving 25,980 participa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3), 499-513.
- Skeem, J. L., & Cooke, D. J. (2010a). Is criminal behavior a central component of psychopathy? Conceptual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debate.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33.
- Skeem, J. L., & Cooke, D. J. (2010b). One measure does not a construct make: Directions toward reinvigorating psychopathy research—reply to Hare and Neumann (2010).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55-459.
- Tsang, S., Salekin, R. T., Coffey, C. A., & Cox, J. (2018). A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psychopathy among nonforensic samples using item response theory analyses. *Psychological Assessment, 30*(3), 311.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Verona, E., Sprague, J., & Javdani, S. (2012). Gender and factor-level interactions in psychopathy: Implications for self-directed violence risk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3), 247-262.
- Webster, C. D., Douglas, K. S., Eaves, D., & Hart, S. D. (1997). *HCR-20: Assessing risk for violence (version 2)*. Vancouver, Simon Fraser University.

논문 투고일 : 2023. 10. 12

1 차 심사일 : 2023. 10. 27

2 차 심사일 : 2024. 01. 02

게재 확정일 : 2024. 01. 17



## Korean psychopathy: Based on the Korean Psychopathy Assessment Tool Validation Research

**Minseong Kang**                      **Dong Gi Seo**                      **Jonghan Sea**  
Yeungnam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Korean psychopathy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prior domestic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psychopathy assessment tools. Domestic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psychopathy scales has been constrained by limited research methodologies, bias toward male subjects, and the application of inappropriate factor structures. Furthermore, although discrepancies between the original scale and the Korean scale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factor structures through in construct validity research,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Korean psychopathy has been limited. As a result, this study compared 16 domestic papers on the validation of psychopathy assessment tools along with 9 international foreign papers that addressed the factor structure of each original scale. By comparing the derived factor structures, items assigned to each factor, and omitted items from each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sychopathy were explor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Korean psychopathy is recognizable from materialism, machiavellianism, and antisocial behavior and impulsivity.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synthesizing the outcomes of current domestic psychopathy validation research and offers a conceptual foundation to help understand Korean psychopathy.

*Key words* : Korean psychopathy, review study, cross-culture, validation, factor structure